



REVEALING the INVISIBLE Namdoo KIM



REVEALING the INVISIBLE

Namdoo KIM 김남두 초대전 : 허구와 실재의 공존

2021. 7. 20 - 8. 28



REVEALING the INVISIBLE

Namdoo KIM

김남두 초대전 : 허구와 실재의 공존

2021. 7. 20 – 8. 28

GREETING 02

김남두 개인전을 개최하며 | 김효정, 갤러리 스킴로 대표

Presenting Namdoo KIM's Solo Exhibition
Hyojung KIM, Director of Gallery Sklo

FOREWORD 03

Namdoo Kim, an Artist of Great Intellectual Curiosity

Richard Whiteley, Senior Programs Manager, The Studio, Corning Museum of Glass
Former Head of Glass, School of Art & Desig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김남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작가

리처드 화이트러리, 코닝 유리 박물관 스튜디오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 | 전 호주 국립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유리조형과 학과장

ARTIST STATEMENT 08

WORKS 10

ARTIST BIOGRAPHY 30

Presenting Namdoo Kim's Solo Exhibition

written by | Hyojung Kim, Director of Gallery Sklo

김남두 초대전을 개최하며

갤러리 스클로는 김남두 작가의 국내 첫 개인전 ‘Revealing the Invisible’을 개최합니다. 작가는 올해 호주국립대학에서 유리조형과 박사과정을 모두 마치고 현재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박사논문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현대인의 물질적 욕망에서 파생된 문제점과 그 영향에 대한 논제를 작업의 중심이 되는 매체인 유리와 세라믹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작가 특유의 다소 냉소적인 시선의 유머와 풍자로 작품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창의적인 탐구로 재해석된 현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 온 시간과 경험을 돌이켜 보며 공감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닥친 COVID 시대의 힘든 상황에서 혼신을 다해 전시를 준비한 촉망받는 김남두 작가에게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갤러리 스클로 대표 김효정

Gallery Sklo is pleased to present 'Revealing the Invisible', the first solo exhibition in Korea by the artist, Namdoo KIM. In 2021, Kim completed the Ph.D. program in Glass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His current career path leads to further developing his art in the United States. The focus of his doctoral dissertation was on issues created by the contemporary societal pursuit of desires linked to the culture of consumerism. Kim works with glass and ceramics, the dominant materials of his works, skillfully sculpting them to reflect his cynical perspectives with humor and satire. Kim's images of modern people, reinterpreted through his creative exploration,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our collective past experiences with insight, empathy and compassion. Please welcome this promising artist and enjoy his works. We eagerly support this emerging artist, and acknowledge the tremendous effort required to prepare and present these works amidst the difficulties imposed by the COVID-19 pandemic.

Namdoo Kim, an Artist of Great Intellectual Curiosity

written by | Richard Whiteley, Senior Programs Manager, The Studio, Corning Museum of Glass
Former Head of Glass, School of Art & Desig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Namdoo Kim is an artist with great intellectual curiosity, enormous technical capability and a deep interest in human society and culture. While bright and playful on the surface, Kim's works referencing toys, Adidas athleisure footwear and other familiar consumer items hold a darker meaning. Building on ground covered by pop art of the late 20th century, Kim's pieces have an edge that cuts open and lays bare the contradictions, moral decay and disappointment inherent within overheated consumer pursuits.

What strikes us first about Kim's work is the seamlessness of it all in the perfect rendering of the objects and their power. The second element clear within the work is Kim's perceptual capacity and understanding of people, society and what drives us. Kim's interest in people is profound. Also evident is his empathy. For instance, in the work Homo-Consumus, large-scale 'children' are presented as busts and are dressed in brightly colored outfits - each one in a different outfit. Their bodies, however, are all the same flat, lifeless, grey color and

their visible emotional distress belies the outer frivolity their clothing suggests.

Growing up in South Korea, Kim experienced a society that values conformity, active consumerism and visual appearances. Kim's interest in the human condition drew him to travel and he has honed his eye through living, studying and working abroad. Living outside of Korea has given Kim a unique vantage point from which to look back into his home country and has allowed him to see the similarities across societies rooted in consumerism.

Kim combines these ideas with a sublime use of materials that demonstrates his remarkable dexterity. He uses glass for its metaphorical associations, for example, he uses voided forms cast in glass to denote absence and isolation. A strength of this practice is that we don't see his extraordinary skills on first viewing, we are often preoccupied with the feeling or emotion of his works. In this way, his ideas are sublimated

within his chosen medium and it's usually over multiple viewings where we begin to see the layers of dexterity that are required to articulate his works. For me, this is a marker that separates his work from many in the crafts and visual arts world. He has the vision, skills and confidence to move between these diverse areas of practice with ease.

Kim was born and grew up in South Korea. He completed his undergraduate degree in fine arts - focusing on glass and ceramics at Hong-Ik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 Kim then traveled to the United States and embarked on an MFA degree at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in Rochester, New York, which he completed in 2013. Kim completed his Ph.D. within the Glass Workshop at the School of Art and Desig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in Canberra Australia in 2021. This exhibition is the first major showing of Kim's work since the completion of his Ph.D. It demonstrates the sharp focusing element doctorate studies had o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his visual language and critical ideas. Through his work, Kim hopes to strike a blow to the heart of our status anxious-driven tendencies. He wants to raise our awareness

(especially that of millennials and younger generations) of how mindless purchasing reinforces anguish and emptiness. Ultimately Kim wants his art to provide us with insight to change our behaviors and experience a more meaningful life.

김남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작가

김남두는 사회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이 크고 기술력이 뛰어난 작가이다. 작가의 작품(장난감, 아디다스 운동화 및 우리에게 익숙한 팝 오브제(소비재)를 모티브로 사용하는 작품들)은 표면적으로는 밝고 장난스럽지만 그 내면은 깊고 어두운 의미를 지닌다. 20세기 후반, 팝아트로 뒤덮인 오늘날의 예술계 안에서 그의 작품은 현대인의 과열된 소비 추구 속 내재된 모순과 도덕적 타락, 실망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가의 작품 속의 완벽하고 매끄럽게 재표현된 오브제와 그것이 전달하는 힘은 단번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원동력에 대한 그의 지각 능력과 이해도를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인간에 대한 심오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공감한다. 예를 들

어, Homo-Consumus 시리즈는 이 시대의 어린 세대를 커다란 흥상으로 표현한다. 작품 속 '어린아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밝고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런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옷은 매우 평면적이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생명력이 없는 회색을 띠고 있다.

김남두 작가는 획일화와 치열한 경쟁체제를 권장하고, 물질만능주의와 시각적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사회를 몸소 경험하고 성장하였다. 그의 인간 세계에 대한 관심은 그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었고, 해외에서의 경험과 생활을 통해 주변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국외 생활은 그에게 고국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독특하고 유리한 시점을 제공하였고, 소비지상주의에 뿌리를 둔 여러 나라들의 사회 전반의 유사점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작가는 이러한 사회 비판적 아이디어를 절묘한 재료의 사용과 뛰어난 테크닉으로 표현한다. 그는 은유적 연상을 위해 '유리'를 주된 매체로 사용하며, 부재와 고립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유리를 구조하여 속이 비어 있는 형태를 만든다. 이 테크닉은 매우 많은 경험과 지식,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며, 오직 유리의 '투명성'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이 테크닉을 이용한 그의 작품이 가지는 강점은 관객으로 하여금 첫눈에 그의 비범한 테크닉에 집중하지 않고, 작품이 가지는 느낌과 감정에 먼저 몰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아

이디어는 그가 선택한 매체 내에서 승화되어 작품이 되며, 일반적으로 여러 번의 감상을 통해 비로소 그가 가진 비범한 기술력의 단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이러한 특징이 그의 작품을 공예 및 시각 예술계의 많은 작품과 구분하게 해주는 표시로써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비전과 기술, 그리고 다양한 예술의 장르를 쉽게 넘나 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김남두 작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는 서울 홍익미술 대학교에서 도예유리를 전공하여 미술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그는 미국으로 떠나 미국 뉴욕 주 로체스터시에 있는 로체스터 공과대학교 유리과에서 2013년도에 석사 학위를 마쳤고, 2021년에 호주 캔버라에 있는 호주국립대학교-예술디자인대학의 유리과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다. 이번 전시는 김남두 작가의 박사 과정 수료 후 그의 작품을 선보이는 첫 번째 주요 전시회로써 작가의 독특한 시각적 언어와 날카롭고 비판적인 통찰과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조그마한 자극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그는 소비주의사회 속 무의미한 소비 욕구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고통과 공허함을 증폭시키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젊은 세대의 인식)을 높이고 싶어한다. 작가는 궁극적으로 그의 예술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더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



작업실 전경 View of Studio

ARTIST STATEMENT

“가속화되어가는 물질 중심적인 현대 소비사회 속에서 성공, 성취, 부의 획득 및 상징적 표시에 대한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스스로를 착취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작품에 투영하고자 하였다...” - 작가노트에서 발췌

본인은 사회에 의해 확립된 하나의 목표에 모든 가치가 치우쳐진 한국사회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리고 물질적인 욕구와 성과주의가 야기하는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겪어 왔기에, 20대이후를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본국인 한국사회의 가치관이 어떻게 어린 세대들에게 사회적 기대와 그에 따른 압박감을 조성하는지에 관심이 많게 되었다. 가속화되어가는 물질 중심적인 현대 소비사회 속에서 성공, 성취, 부의 획득 및 상징적 표시에 대한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스스로를 착취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작품에 투영하고자 하였다.

'Revealing the Invisible' 전시를 들여다보면 네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1. Expendable Being '소모되는 존재', 2. Homunculus '호문쿨루스', 3. Sign Value '기호 가치' (Wanna Be A Superstar, Air Walk), 4. Contemporary Mankind '현대 인류' (Homo-Consumus, Homo-Ornamentus, Homo-Predatus). 각각의 프로젝트는 다양한 사회학적 이론, 철학,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를 각기 다른 관점으로 소개한다.

레고 브릭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Expendable Being**은 현대 사회가 어떻게, 왜 사람들을 일관되게 정의된 패턴에 순응하도록 변화시켜야 했는지를 보여준다. **Homunculus**는 현대인들이 치열한 경쟁체제로부터 결코 해방될 수 없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치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탐구한다.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

를 모티브로 제작된 **Sign Value**는 현대 소비사회를 지탱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메커니즘과 원동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품을 통해 상품 자체가 아닌 그 상품이 지닌 무형의 기호의 가치를 소비하는 현대인의 새로운 소비형태를 보여준다. **Contemporary Mankind**는 오늘날 매스미디어에서 파생된 이미지와 수많은 문화적/사회적 기호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현실과 가상현실을 융합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민한다. Contemporary Mankind는 본인이 만들 어낸 가상의 인류이며, '실재'와 '허구'가 병행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소비하는 현대사회 속 가치들과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예술이라는 언어를 통해 나의 목소리가 오늘날의 한국을 비롯한 많은 현대 사회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



ARTIST STATEMENT

“The focus is on issues of consumerism and the sociological impact of ‘object desire’, the creation of desire for status and material possessions based on persuasive mass media advertising practices and social pressures...” - excerpts from the artist stat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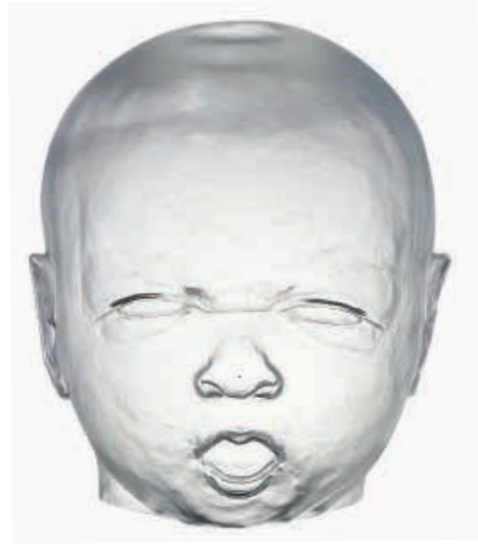
I grew up in an atmosphere of intense competition, dominated by object desires, where all values were biased towards a single goal established by societal pressures. I became particularly interested in how contemporary consumer values create social expectations and subsequent pressures, especially on young children in my home country of South Korea, after studying and working abroad in my 20s. The focus is on issues of consumerism and the sociological impact of ‘object desire’, the creation of desire for status and material possessions based on persuasive mass media advertising practices and social pressures.

The exhibition ‘Revealing the Invisible’ is the realization of four studio-based projects: 1. Expendable Being 2. Homunculus 3. Sign Value (Wanna Be A Superstar, Air Walk) and 4. Contemporary Mankind (Homo-Consumus, Homo-Ornamentus, Homo-Predatus). Each of these projects addresses different historical, cultural, socio-economic and philosophical considerations and investigations based on contextual,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earch.

Expendable Being suggests how and why modern society transformed people to conform to clearly defined pat-

terns. The project is inspired by LEGO bricks. **Homunculus** explores the conditions that prevent people from freeing themselves from the intensely competitive system. **Sign Value** points to the mechanisms and underlying forces that drive contemporary consumer society using icons, materials and presentation choices that for me compellingly visually represent what drives consumption. Through the project, I reference the research evidence that people today consume to acquire the value of the intangible symbol of the product, not the product itself. Created from the content of the preceding projects, **Contemporary Mankind** is a series of fictive human beings in which I consider the veracity and reality of elements within modern society to which we are constantly exposed, and constantly enticed to see, hear, consume, and pursue. These projects are my exploration into the true nature and ramifications of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how this is influenced by the presence of virtual reality in contemporary consumer society.

It is my hope that my voice might help younger generations avoid the unhappiness and grief of the societal pressures that I experienced, and which persist today in South Korea and in many other countries.



REVEALING the INVISIBLE

Expendable Being 소모되는 존재

Expendable Being은 현대 사회 속에서 획일화되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추주는 거울이 되어 우리의 현실 세계를 반사하여 보여준다. Expendable Being은 마치 딱 들어맞게 규격화된 레고 브릭들처럼 획일화되어 개성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레고 브릭들이 서로 더 동일해짐에 따라 하나의 완벽한 부품으로써 더욱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자율성과 이데올로기의 환상에 빠져 점차 자발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더 완벽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자아를 포기하며 스스로가 사회에 딱 들어맞게 규격화된 레고 브릭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Expendable Being offers a mirror to all of us, to notice in its reflection, the reality of our world. As the glass bricks become more identical, they become more perfect and valuable. Inspired by truly great social thinkers and artists Expendable Being offers a caution to be aware that, like glass bricks, we ourselves are becoming identical bricks in contemporary society. We are complacently fooled by the placebo effect of illusory autonomy, into gradually, voluntarily (yet unconsciously), abandoning personal freedom to fit into the mass culture of consumerism.

Expendable Being | 2020 | h9 x w9 x d9 cm (each brick) | Cast glass (right)

Contemporarian's Mask | 2020 | h35 x w32 x d35 cm | Blown glass, Gold leaf (previous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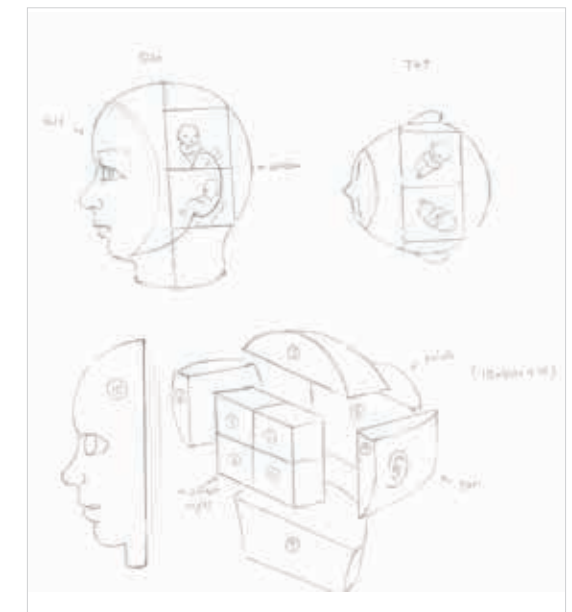


Homunculus 호문쿨루스

Homunculus의 유리 두상 속의 정체성을 잃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갇혀 있는 아이들은 삶의 길이나 목표를 찾지 못하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의 모습을 반영한다. 소설 속 '호문쿨루스'가 플라스크 안에 서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아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플라스크 (두상)에 갇혀 황금 가면 뒤로 숨어버린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황금 가면으로 덮여지지만 어느덧 황금 가면은 그들의 숨길 수 없는 감정에 일그러져 버린다. 하지만, Homunculus의 진정한 본질은 치열한 상대적 부귀의 추구를 패러디한 무거운 황금 가면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내면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조작할 수 있는 다면적 '투명성'에 있다.

As the younger generation today, who cannot find their way or goal in life, the children of Homunculus have lost their sense of direction and identity, and appear to be trapped in their confused state. They are trapped inside the societal head, just beneath the mask of gold. Just as the original homunculus was trapped in his flask, the children of today are imprisoned in their societal flask, although it is disguised by the superficial golden surface. Their plight is exposed through the lens of the transparent societal surveillance system, in which they monitor their own, and everyone else's education, achievements, positions, acquisitions and family background. They must be perfect to fit into their place. The true nature of Homunculus is hidden behind the heavy gold mask worn in a parody of the fiercely competitive pursuit of comparative wealth, and buried behind the confusion of a many-faced transparency that not only reveals, but manipulates those within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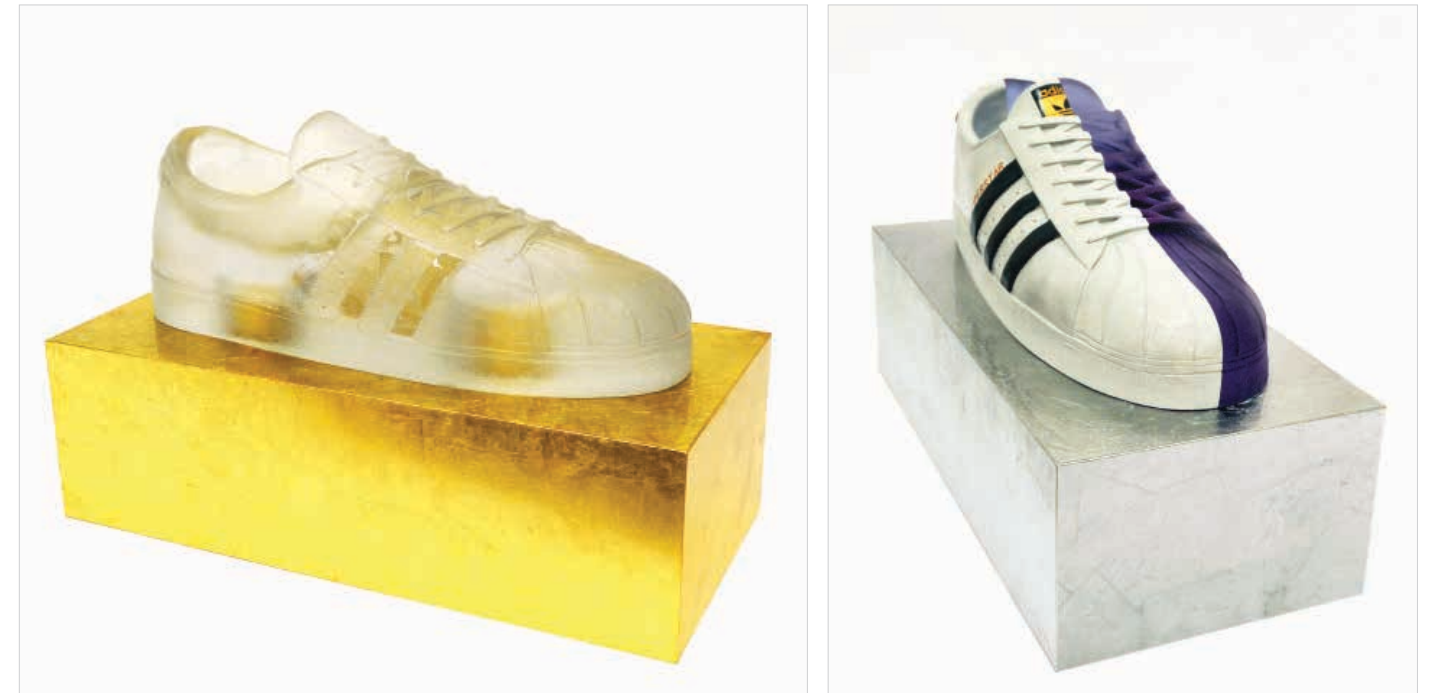
Homunculus III | 2021 | h35 x w30 x d38 cm | Cast glass, 24K Gold leaf



Wanna Be A Superstar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

오늘날 소비주의의 자기 영속화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 구조는 점점 더 값 비싼 부의 상징의 진화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불필요한 소비행위를 불러 일으킨다. Wanna Be A Superstar는 이러한 허구적인 소비 행동 패턴이 현대 소비사회를 이끄는 메커니즘과 근본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진 터무니없는 현실임을 드러낸다. Wanna Be A Superstar는 소비를 향한 우리의 파괴적인 욕구와, 소비와 생산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영속해 나가는 소비사회에 대한 상징적 결과물이다.

The social structure created by consumerism's need to self-perpetuate has given rise to the evolution of increasingly costly symbols of wealth, and the acquisition of extravagances that do not meet real needs but perpetuate the system. Wanna Be A Superstar embodies the uselessness of these behavioural patterns, and the damaging effect they have on those wanting to improve their lives. It symbolises the absurd reality created by the mechanisms and underlying forces that drive contemporary consumer society. Wanna Be A Superstar is a metaphor for our destructive pursuit of acquisitions and the pillars on which we place them. It embodies the ever-increasing production of symbols we try in vain to acquire. Wanna Be A Superstar intends to ask us to consider the irony of behaviours which unwittingly increase the disparity of wealth, and hopelessly cement our positions within the new social class system.



Wanna Be A Superstar (Gold) | 2018 | h33 x w55 x d25 cm (with stand) | Cast glass, Mixed-media

Wanna Be A Superstar (Silver) | 2018 | h33 x w55 x d25 cm (with stand) | Cast glass, Mixed-media

Air Walk 허공을 걷다

에어 조던의 비어 있는 공허한 이미지는 황금 신발의 그림자 또는 메아리로만 존재한다. 빈 공간은 항상 존재하는 '물질적 욕망'의 공허함과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완성하지 못할 물건에 대한 끊임 없는 갈망의 무익함을 나타낸다. 나아가 그것은 우리에게 마치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와 같은 순환 논리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우리는 과연 에어 조던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에어 조던을 원하기 때문에 그 상품 가치가 높아진 것일까?”

The void image of the Air Jordan inside of the glass stand exists only as a shadow, or an echo, of the gold shoe sitting on the stand. It is, in reality, an empty, hollow. The hollow represents the ever-present emptiness of 'object desire' and the futility of constantly craving for objects which will never satisfy or complete us. The void of the Air Jordan shows that, in the end, our desires can never be filled through the consumption of commodities existing in our society. The shadow void questions the assignment of value for objects, like the collector Air Jordan. It evokes references to circular logic, and the puzzle of which came first, the chicken or the egg. Which came first: the desire for the object (shoe), or the value of the object? Do we desire it because it has value, or does it have value because we desire it? The void is an inverted image of the shoe above it. It references the inverted world of Alice, suggesting the topsy-turvy world of inverted realities and values.



Air Walk | 2021 | h62 x w64 x d30 cm | Cast glass, Ceramic, Gold leaf, Stainless Steel



Contemporary Mankind

Homo-Consumus 소비하는 인간

Homo-Consumus는 소비사회가 만들어 낸 화려한 가상의 현실 속에서 실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상의 이미지에 사로 잡힌 현대인을 대변한다. Homo-Consumus는 단어 그대로 '소비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우리는 가상의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을 소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무지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을 희생하고 인위적인 욕망의 금을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The children of Homo-Consumus are metaphors for modern people, seized by simulated material desires that are perpetually visible, and seeking the meaning of life in the splendid virtual reality created by the consumer society. As a society we tend to consume, ignorant of the actual reality which is the original, and which still exists below our virtual world. We have similar collective tendencies for other destructive behaviours: perpetually running after virtual, fictitious goals and consuming everything that we believe will bring us happiness and enhance our lives. Homo-Consumus literally translates to 'human beings who consume'. In reality, these behaviours may all eventually sacrifice our ultimate goal of happiness by chasing after the fool's gold of artificial desires.

Homo-Consumus #190207 | 2020 | h90 x w62 x d39 cm | Ceramic, Automotive paint





Left: [Homo-Consumus #171103](#) | 2020 | h56 x w47 x d34 cm | Ceramic, Automotive paint
Right: [Homo-Consumus #171221](#) | 2020 | h64 x w53 x d36 cm | Ceramic, Automotive pa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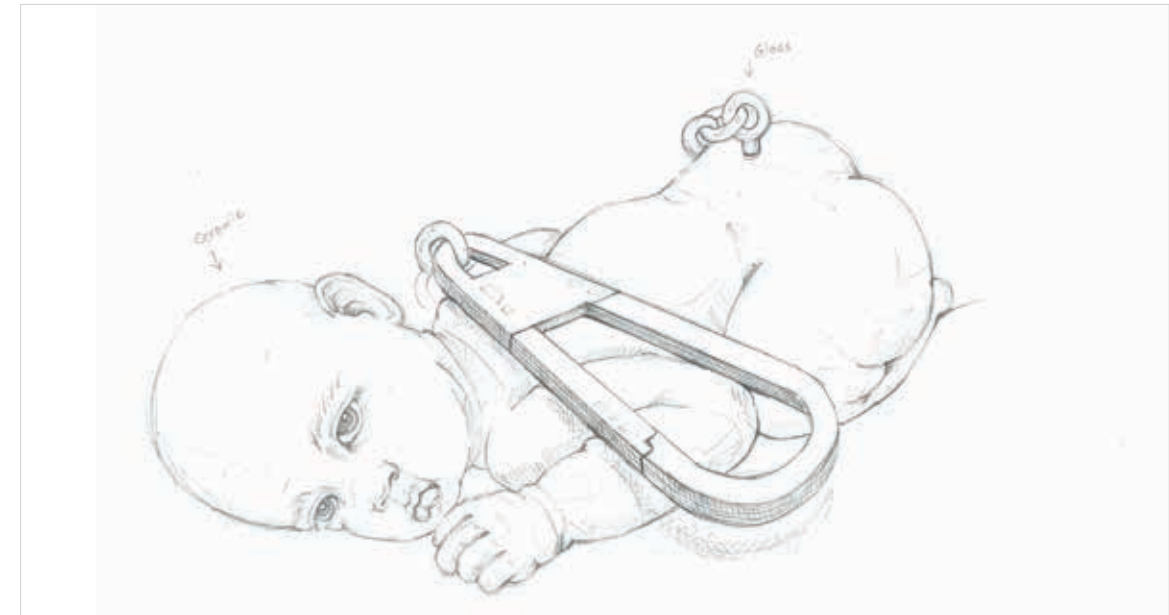
Left: [Homo-Consumus #180104](#) | 2020 | h75 x w57 x d38 cm | Ceramic, Automotive paint
Right: [Homo-Consumus #180127](#) | 2020 | h72 x w54 x d36 cm | Ceramic, Automotive paint

Homo-Ornamentus 장식용 인간

Homo-Ornamentus의 열쇠 고리는 추상적인 개념을 지닌다. “지위 상승의 열쇠”, “성공의 열쇠”, 심지어 “미래의 열쇠”까지. 거대한 열쇠 고리의 클립 부분은 수 톤, 수 만개의 키를 지탱하고 끼울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는 반면, 그것의 무게는 아기를 짓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Homo-Ornamentus의 열쇠고리 아기처럼 황금빛 미래를 위한 희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궁극의 황금 장식품임과 동시에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Homo-Ornamentus uses the concept of a key chain not as the holder for physical keys, but as the keeper of more abstract keys. ‘The key to elevating one’s status’, ‘The key to success’, even, ‘The keys to the future’. The gigantic clip can hold many keys, however its weight presses down and keeps the baby from moving. The clip also references the pressure on parents to show unconditional love and make constant sacrifices. The baby as a keychain is the ultimate golden ornament metaphorically chaining our children to the heavy burden of bearing the keys to the future, and to all that is precious to the parents and the family.

Homo-Ornamentus #200923 | 2021 | h30 x w60 x d90 cm | Ceramic, Cast glass, Gold leaf



Homo-Predatus 포식자 인간

신자유주의속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두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바라보도록 교육받는다. 기성세대들은 아이들에게 ‘먼저 잡아 먹지 않으면 잡아 먹힌다’는 식의 약육강식의 이념을 주입한다. Homo-Predatus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누군가는 경쟁의 패배자나 먹잇감이 되어야 하는 사회’, ‘누구나 잡아 먹히지 않기 위해 송곳니를 드러내야 하는 사회’ 속에서 약점을 감추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외로운 포식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의 모습을 대변한다.

Homo-Predatus translates as human predator. This sculpture is a reaction to the heavily competitive atmosphere that exists today for the younger generation. They are learning to live in a ‘dog-eat-dog’ environment where ‘only the strong survive’. Homo-Predatus expresses what it feels like to be caught in a society where children are forced to show aggression in order not to be eaten, to hide their weaknesses, and to maintain the form of a lonely predator.

Homo-Predatus #200301 | 2021

h62 x w58 x d90 cm | Ceramic, Automotive paint, Gold leaf, Silver leaf





Artist Biography

EDUCATION

- 2021 Ph.D., Glass,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ustralia
- 2015 M.F.A., Glass,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ochester NY, U.S.A.
- 2011 B.F.A., Glass & Ceramic, Hong-i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SELECTED EXHIBITIONS

- 2021 Korea Galleries Art Fair, Gallery SKLO at COEX, Seoul, South Korea
- 2020 KIAF :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virtual exhibition), Gallery SKLO, South Korea
Revealing the Invisible (Ph.D. Solo Exhibition), ANU Gallery, Canberra, Australia
Glass Flex (Studio Glass in Korea), Gallery SKLO, Seoul, South Korea
Collect : International Art Fair for Modern Craft and Design, Gallery SKLO at Somerset House, London, UK
- 2019 KIAF :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Gallery SKLO at COEX, Seoul, South Korea
Style in Glass II, Gallery SKLO, Seoul, South Korea
Korea Galleries Art Fair, Gallery SKLO at COEX, Seoul, South Korea
Perspective, Red Moon Art Glass Gallery, Melbourne, Australia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Glass Kanazawa, Shiinoki Cultural Complex, Kanazawa, Japan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Glass Kanazawa, Notojima Glass Art Museum, Notojima, Japan
- 2018 SOFA Expo : Sculpture Objects Functional Art and Design, Gallery SKLO at SOFA Chicago, IL, U.S.A
Big Awards, CAGE Gallery, Barcelona, Spain
KIAF :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Gallery SKLO at COEX, Seoul, South Korea
Material Imagination : Glass & Ceramic, Gallery SKLO, Seoul, South Korea
International Ceramic & Glass Exhibition, Kastamonu University, Kastamonu, Turkey
National Emerging Art Glass Prize 2018, Wagga Wagga Art Gallery, NSW, Australia
- 2017 Hangzhou International Contemporary Glass Art Exhibition, Craft Museum of CAA, Hangzhou, China

- Art in Craft Media 2017, Burchfield Penney Art Center, NY, U.S.A
Random, ANU School of Art Foyer Gallery, Canberra, Australia
Flame on glass 2017, Kirra Gallery, Melbourne, Australia
Small works show (National juried competition), Main street arts gallery, NY, U.S.A
- 2016 Emerging Artist in Residency Exhibition, Schack Art Center, WA, U.S.A
International Juried Art Competition & Exhibition, Art Kudos, U.S.A
Three, Alumni Exhibition, Gallery R, NY, U.S.A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Glass Kanazawa, Shiinoki Cultural Complex, Kanazawa, Japan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Glass Kanazawa, Notojima Glass Art Museum, Notojima, Japan
The Human Figures, Main street arts gallery, NY, U.S.A
- 2015 Emerging Artist in Residency Exhibition, Pilchuck Glass School, WA, U.S.A
Art in Craft Media 2015, Burchfield Penney Art Center, NY, U.S.A
Refigured (Invitational), Exhibit-A Gallery, NY, U.S.A
Structurally Speaking (National juried competition), Main street arts gallery, NY, U.S.A
Invisibilia, 1975 Gallery, NY, U.S.A
Harper College National Juried Exhibition, Harper College Gallery, IL, U.S.A
- 2014 Small works show (National juried competition), Main street arts gallery, NY, U.S.A
GAS (Glass Art Society) student exhibition, IL, U.S.A
4 in 1 (Artists in Residence group show), University Gallery, NY, U.S.A
Naked Glass (Instructors group show), Studio 34, NY, U.S.A
- 2013 8th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Cheong-Ju, South Korea
Convergence (2nd Annual juried graduate student exhibition), University Gallery, NY, U.S.A
Life is Good (MFA Thesis Solo Exhibition), Ohringer Gallery, NY, U.S.A

- Contemporary 6"x6" Collaborated Exhibition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 China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NY, U.S.A
GAS (Glass Art Society) international student online exhibition
- 2012 The Creative Process: from ideation to realization, Gallery R, NY, U.S.A
Meta project 2 (ICFF Evite), NY, U.S.A
- 2011 Contemporary Ceramic (Group exhibition), Seoul Newspaper Company, Seoul, South Korea
- 2010 BFA Graduation Exhibition, Hong-i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Craft Trend Fair (Solo Selected Exhibition), COEX, Seoul, South Korea
Where the Glass Breathes (Group exhibition), Gallery lang, Seoul, South Korea
Art Auction, Hong-i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Jewelry Exhibition (Group exhibition), Gallery I-do, Seoul, South Korea
24,7 (Group exhibition), State University of Long Beach, CA, U.S.A
- 2009 The Mixer (Group exhibition), State University of Utah, UT, U.S.A
Korea and Japan International Art Exchange (Juried group show), Hong-i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Twinkle, Twinkle (Group exhibition), Gallery Tong-in, Seoul, South Korea

PROFESSIONAL EXPERIENCE

- 2016 Artist in Residence (AiR), Corning Museum of Glass, Corning NY, U.S.A.
- 2015 Emerging Artist in Residence (EAiR), Pilchuck Glass School, Stanwood WA, U.S.A.
- 2013 Artist in Residence, Glass sculpture dept. School for ~ American Crafts,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ochester NY, U.S.A.

ARTIST LECTURE | SYMPOSIUM | DEMONSTRATION

- 2019 Glass Works, Canberra ACT, Australia
- 2018 Glass Works, Canberra ACT, Australia
Night Co, Sydney NSW, Australia
- 2017 China Academy of Art, Hangzhou, China
- 2016 Corning Museum of Glass, Corning NY, U.S.A

- 2015 Pilchuck Glass School, Stanwood WA, U.S.A
- 2014 Studio 34, Rochester NY, U.S.A

SERVICE

- 2011 RIT Glass Program's Annual Fundraiser, which supports the Glass Programs Visiting Artist/Critic Series and the RIT Women's Council's Scholarships for Women Who've Overcome Adversity
- 2005 Volunteer teaching, at the handicapped children school
- 2010 of Miral Welfare Foundation

TEACHING EXPERIENCE

- 2019 Instructor, Flameworking Workshop, Canberra Glassworks, Canberra ACT, Australia
- 2018 Lecturer, Glass dep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CT, Australia (Glass casting (Semester 1, 2018))
- 2016 Instructor, Workshop with Design Team of Samsung Electronic at Corning Museum of Glass, Corning NY, U.S.A.
- 2013 Instructor, Glass sculpture dept.
- 2016 School for American Crafts,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ochester NY, U.S.A.
Part-time Instructor, Studio 34, Rochester NY, U.S.A. Flame-working class (Aug 2013 ~)
- 2011 Teaching Assistant Position, Glass sculpture dept.
- 2013 School for American Crafts,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ochester NY, U.S.A.

AWARD AND SCHOLARSHIP

- 2020 Grant for Exclusive Arti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South Korea
- 2019 Selected Award,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Glass Kanazawa, Japan
- 2018 Highly Commended, National Emerging Art Glass Prize, Wagga Wagga Art Gallery, NSW, Australia
- 2016 Selected Award,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Glass Kanazawa, Japan
Merit Award, Art Kudos: International Juried Art Competition & Exhibition, U.S.A.
Full Scholarship Recipient, Corning Museum of Glass, NY, U.S.A
- 2015 Full Scholarship Recipient, Pilchuck Glass School,

- WA, U.S.A.
- 2014 Honorable Mentions, GAS (Glass Art Society) Conference, IL, U.S.A.
Finalists in Professional, Niche Award 2015, U.S.A.
Full Scholarship Recipient, Penland School of Crafts, NC, U.S.A.
Half Scholarship Recipient, Pilchuck Glass School, WA, U.S.A.
- 2013 Honorable Mentions, 8th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South Korea
Finalists in Student, Niche Award 2014, U.S.A.
Honorable Mentions, GAS (Glass Art Society) international student online exhibition
- 2012 Student Scholarship Recipient,
- 2010 GAS (Glass Art Society) Conference
Honorable Mentions, Seoul Contemporary Ceramic Competition, South Korea
Second Prize, Doll Competition by HAITAI Confectionery & Foods Co., South Korea
Third Prize, Clay Olympics in I-Cheon, South Korea

PUBLICATION

- 2020 House Organ (Byuck-San Engineering) - Cover page & Interview : Vol. 46 Winter
- 2019 Neues Glas Magazine - Cover page : No. 4
Ruminate Magazine - Cover page : Volume 51, 'Consume'
- 2016 Art Premium Magazine : Fall 2016 Issue, 'South Korea Under the Spotlight'
- 2015 NICHE Magazine : Niche Awards Finalist
- 2014 NICHE Magazine : Niche Awards Finalist
GAS (Glass Art Society) NEWS : Summer 2014 'Identity', by Karen Donnellan
- 2013 Democrat and Chronicle News : August 3, 2013, Rochester NY, U.S.A.

COLLECTIONS

- 2019 Byuck-San Engineering, South Korea
Sorak Cultural Center, South Korea
- 2016 Corning Museum of Glass / Studio, U.S.A.
- 2010 Haitai Confectionery & Foods Co., South Korea
- 2008 Agatha, South Korea





2020, 강원도 속초, 설악산책, 설치 장면
2020, Installation view, Sorak Cultural Center, Korea

도록 진행
PUBLICATION

갤러리 스킨로 Gallery Sklo

본 도록의 모든 권리는 갤러리 스킨로에 있으며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Gallery Sklo.
Copyright © 2021 All rights reserved

디자인 DESIGN
사진 PHOTO
인쇄 PRINT

graphicat
김남두 Namdoo Kim
박광춘 KC Studio
비주얼볼 Visual VOM

후원 SPONSOR

